

암소를 부르는 바닷바람을 타고, 부산경남지원으로 오이소!

⑧ 부산경남지원 편

고객홍보팀



암소 아닌 것 찾기가 힘든 도체들 속 평가사들

어느덧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매력적인 속살', 10개 지원을 소개하겠다는 1년 장기 기획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남은 지원의 수가 줄어들에 따라 어디를 먼저 가야할지 소소한 고민이 더해진다.

이번 달은 부산경남지원이다. 세종시로 이전했으니 가볍게(?) 운전해서 다녀오자' 했다가 생각보다 먼 길에 파곤에 절은 상태로 취재를 시작했던 곳. 그럼에도 여러 지원을 취재하며 나름의 전문성을 쌓았다는 뿌듯함이 극에 달해 정신만은 '틀루랄라~'했던 지원이다. 그 이유로 이번 부산경남지원의 취재기를 풀어본다.

거세 최고라고? 우린 암소다!

전달 대구경북지역 방문에 앞서 늘 그렇듯 지원의 특색을 잡기 위한 사전조사를 먼저 했다. 그 결과가 '거세=대구경북'이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었으니 거세만이 아닌 한우 전체를 보면 순위가 확 뒤바뀐다는 것, 특히나 그렇게 뒤바뀐 1위가 다수가 예상하는 음성공판장을 낀 충북이 아닌

부산경남지원이라는 사실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것은 암소라면 꼭 잡고 있는 부산경남의 '파워' 덕분이다. 9월 말 현재, 암·수·거세를 모두 포함한 한우 등급판정 누적두수를 보면 부산경남지원이 13만 1,310두로 단연 1위다. 여기에는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암소



암소다 카면 여 아입니까? 김해축공

판정량이 큰 힘이 됐다. 93,948두. 어떤 지원에서는 전체 판정량에 해당하는 물량이 암소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경남지역의 지극한 암소 고기 사랑이 배경에 깔려있다. 바닷가 지역이 넓어 생선을 주로 먹다보니 생선비린내에는 익숙하지만 육류의 웅취에는 민감하다는 지역적 배경이 전통적으로 세를 뻗어 왔던 것이다. 지원에서는 '70년대만 해도 암소가 대부분으로 거세가 지금처럼 나오기 시작한 게 불과 10년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고객홍보팀이 방문한 김해축산물공판장은 이러한 성향을 가장 강하게 띄는 곳이다. 김해공판장은 암소시장으로서 부산경남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하다. 지난달이 '거세거세거세'의 물결이었다면 이번은 '암소암소암소'의 물결이다. 다만, 대구경북은 '거세'라고 표시했지만 부산경남은 따로 표시하지는 않다보니 가끔 드물게 하나 끼어있는 '거세' 숨은 그림찾기를 하다가 암-거세 구분법을 확실히 익히게 됐다.

명품브랜드를 만드는 명품지원

부산경남지원은 총 16개 작업장에 23명이 근무



돼지고기 등급판정 중인 평가사(김해축공)

하고 있다. 지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2개의 광역시를 아우르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축산물등급제 시행 이후 소·돼지 작업장수가 14곳에서 7곳으로 도축장 구조조정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다.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되돌려보면 등급제 태동시 지원을 채용해놓고 훈련할 곳이 없어 고민할 때 부산경남지역에서 수용해줘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사연이 있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변화에 적극적이라는 소리다.

그렇게 의욕적이고 축평원에 우호적인 지역과 적극적인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것이 바로 '명품브랜드'다.

명품브랜드는 품질과 위생·안전성이 뛰어난

축산물 브랜드를 인증하는 우수 축산물 인증 브랜드 가운데 최근 5년간 우수브랜드 시상식에서 3번 이상 대상을 받은 브랜드를 말한다. 2015년 황성축협 한우·참예우·포크밸리가 명품브랜드 인증패를 받았으며 돼지로는 부산경남지역에 위치한 '포크밸리'가 유일하다.



부산경남지원과 함께하는 명품브랜드 포크밸리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지정업체 중 한 곳인 국제식품

아무래도 지역에서 축산물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사업으로 활성화하자면 축평원과의 업무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축산물등급제와 이력제, 유통조사 등이 주요사업인데다가 축산물브랜드 인증 업무에도 축평원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협력과 소통을 통한 상생 추구가 필수다. 특히, 포크밸리가 부경양동농협의 브랜드로 김해축공에 위치해 있기에 해당 작업장과의 교류가 잦다. 김해축공의 돼지 판정물량 중 다수가 포크밸리의 것으로 일 700두 이상에 해당한다.

품질공정, 찾아가는 지원의 서비스 급식

부산경남지원은 지원 특화사업으로 쇠고기 부분육 품질공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제1로 꼽을 것은

분명 부산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부산권 학교급식 품질공정지정업체 납품이다.

지난 2013년 8월 8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은 부산시교육청·부산안전축산물협의회와 학교급식용 쇠고기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에서 한우가 아닌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부산 내 60개 학교가 학교급식 선진화와 유통 선진성 확보라는데 공감해 참여했다. 올해는 부산시에서 의무 시행을 자율시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춤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외레 크게 증가해 확인 시점인 9월 현재 132개 학교가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며 입찰을 통해 품질공정지정업체에서 생산한 한우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에 크게 고무된 부산경남지원은 부산 외 다른 지자체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경남지역의 훈풍이 전국으로 불어나가길 기대한다. **동경정**



최규진 지원장이 이야기하는 우리지원, 그리고 2015년



“우리 부산경남은 축산분야에서 전국 소·돼지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대도시의 축산물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스케일과는 달리 우리지원은 축평원에서 평균 연령대가 제일 높은 지원입니다. 1·2·3기 입사자가 직원의 70% 이상입니다. 부임 후 가장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게 지원 중심 업무체계에서 탈피한 책임업무제입니다. 또한, 종종 관사에 모여 고기파티를 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며 고경력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젊은 직원들의 패기·창의성과 더불어 공유하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덕인지 다행히 우리지원은 20년 이상의 연배 차이에도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큰 힘으로 삼아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축산물유통 메카로서 부산경남의 역할을 더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